



특성화고등학생의 성격강점과 주관적 행복 간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허혜영(상명대학교)*

장석진(상명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성격강점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를 알아보고, 그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019년 7월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지역 소재 두 개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집된 227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특성화고등학생의 성격강점과 주관적 행복 간의 상관을 알아보고,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검증을 수행하였다. 주요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AMO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부트스트랩 절차를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성격강점은 주관적 행복,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또한 주관적 행복과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둘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성격강점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고등학생의 성격강점이 이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높아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특성화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주관적 행복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및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성격강점, 주관적 행복,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특성화고등학생

I. 서론

2019년 세계 행복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156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54위이다. 특히, OECD 36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주관적인 행복지수’는 30번째로 OECD 국가 내에서 최하위권이다(서울경제, 2019). 우리나라 청소년

* 제1저자: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박사수료

**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교수(schang@smu.ac.kr)

사망원인 1위가 10년이 넘도록 자살이라는 통계청(2019)의 발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매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2018)’에 따르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주된 이유로 청소년들은 학업문제(학업부담·성적)를 꼽았고(37.2%),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21.9%), 가족 간의 갈등(17.9%) 순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19). 이처럼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학업문제와 미래의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신의 삶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청소년들의 행복을 높일 수 있는 개입 전략이 매우 시급하다. 특히, 전국 581개 고등학교 중 458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세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래 직업에 대한 불안감을 그 어느 청소년보다도 크게 느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러 통계자료에 의하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업 중단 학생은 2016년 6,652명, 2017년 6,808명, 2018년 7,301명으로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2018), 이들의 학업중단 사유로 학교부적응이 꼽혔으며(교육부, 2015), 잠재적 학업중단에 정서적·신체적 어려움과 문제행동, 그리고 진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임유화, 2013).

특성화고등학교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흥미에 맞는 교육을 통해 우수한 기술과 기능 인재를 키우고, 좋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는 학교이다. 우리나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은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졸업 후 대부분 취업을 한다. 이러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은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에 맞는 진로를 결정하여 취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취업을 위한 진로결정에서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취업을 목적으로 진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한편, 취업 후 사회인이 되어 일하게 될 그 일을 통해 행복한 직업인이 되기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한다. 특성화고등학생이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현실에서 졸업 후 취업하여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여 행복을 높일 수 있도록 주관적 행복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행복은 쾌락주의적 행복관인 ‘주관적 안녕’과 자기실현적 행복관인 ‘심리적 안녕’의 전통적 두 관점을 통합하여 정의되고 있다(Compton, Smith, Comish, & Qualls, 1996). 최근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이 대두되면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이고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증진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긍정심리학은 매우 광범위한 주제에 관심을 지니지만, 삶을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기 위한 긍정 상태(positive states), 긍정 특질(positive traits), 긍정 기관(positive institutions)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Seligman, 2002b; 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이러한 긍정심리학은 첫째, 인간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다양한 긍정적 심리상태를 연구하며, 둘째, 개인이 지니는 긍정적인 특질, 즉 개인의 긍정적인 성격특성

과 강점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셋째, 행복과 자기실현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기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의 핵심적인 목표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특질을 연구하기 위해 제시한 개념으로 ‘성격강점’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성격 강점은 개인의 사고, 정서,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 특질을 의미하는 것으로(문용린 외, 2009), 사고, 정서, 행동에 반영되어 있는 긍정적 특성의 조합을 의미한다(Park, Peterson & Seligman, 2004). 긍정심리학에서는 성격강점연구를 바탕으로 성격 강점과 덕목에 대한 분류체계(Values In Action: VIA)를 구축하였다. VIA분류체계는 6개의 덕목과 하위 24개 강점으로 구성되었으며, 6개의 덕목은 지혜와 지식(wisdom), 인류애(humanity), 용기(courage), 절제(temperance), 정의(justice), 초월(transcendence)이다. 성격 강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격 강점과 행복의 관계를 살펴본 김지영(2016)의 연구에서는 성격 강점은 행복 점수간의 유의한 정적 관계를 밝히고 있다. 또한, 성격 강점이 청소년들의 행복에 대한 적응과 관계된다는 연구(김정주, 2010), 성격 강점이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미진, 2011), 성격 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것이 행복을 향상시킨다는 긍정심리치료의 효과를 보고하는 연구(임영진, 2010; 김지영, 2011) 등이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성격 강점은 주관적 안녕감과 행복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직업인으로써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Super(1957)에 의하면 진로 발달을 아동, 청소년, 성인 초기 동안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 고등학생의 시기는 자신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현실적인 요인들을 고려해 보는 전환기(transition substage)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고등학생의 시기는 진로준비 단계로 앞으로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일과 관련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 직업과 관련한 흥미와 적성의 발견, 원하는 직업과 자신의 특성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일들이 중요하게 된다(김수림, 2014).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온 변수들 중 하나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발달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되어 왔다(김수지·이정자, 2013; Taylor·Betz, 198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 의사결정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으로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Betz & Hackett, 198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진로선택에 대한 자신감과 진로선택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정진선, 2000),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

태도를 성숙의 40%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기학·이학주, 2000)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등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자기효능감이 낮으며(이상준 외, 2008), 진로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의 비율이 일반고 학생들보다 높다(박성미, 2004). 반면, 자신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및 진로탐색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을수록 성격 강점이 높았으며(조은주, 2018), 강점인식과 강점 활용이 자기효능감을 거쳐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 선행 연구 결과(조남근·권정희·정미예, 2016)를 근거로 볼 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행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취업을 앞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자신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스스로의 진로를 위해 목표를 설정하고 진로를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주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이 가진 성격 강점을 인식하는 것은 자존감과 자신감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임영진, 2010)와 직업의 현장에서 진로결정과 탐색의 진로발달 단계를 맞게 되는 특성화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여줌과 동시에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는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이호진·김완일, 2016)을 토대로 볼 때, 특성화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을 높이기 위해 성격 강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격 강점의 관점에서 행복에 이르는 경로를 살펴본 그 간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대학생 또는 일반고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대부분으로, 그 누구보다도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해서 고민과 어려움이 큰 특성화고등학생들에 중점을 두고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성격 강점의 관점에서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점에서 살펴본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개입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제공할 것이며, 더 나아가 행복도가 낮은 우리나라 청소년, 특히 특성화고 학생들의 주관적 행복을 높일 수 있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바탕으로 선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성격 강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성격강점과 주관적 행복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 두 개의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하여 3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26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배포 및 수거하였다.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성격 강점과 주관적 행복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역할을 입증하고자 선정하였다. 2019년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양일간 특성화고등학교에 연구자가 방문하여 담임선생님께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담임선생님이 설문지 작성에 동의를 구한 후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다.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3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227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성별 분포는 남학생이 142명(63%), 여학생은 85명(37%)이다.

2. 연구 도구

가. 성격강점

특성화고등학교의 성격강점측정을 위해 사용된 VIA-IS 축약판은 기존 VIA-IS에서 각 성격 강점을 대표적으로 측정하는 문항을 두 개씩 추출한 총 48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척도로 평정하며, 응답은 5점(매우그렇다), 3점(보통이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의 범위이다. 이 척도는 상위 개념으로 6개의 덕목과 세부적으로 24개의 강점을 측정할 수 있다. 선행연구의 전체 신뢰도는 .94를 나타내었다(최혜선, 2019).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 성격 강점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4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지혜와 지식 .78, 용기 .75, 인간애 .72, 정의 .74, 절제 .63, 초월 .81으로 분석되었다.

나. 주관적 행복

Seligman(2002)이 제안한 행복의 세 가지 구성요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권석만과 김지영이 개발한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주관적 행복 측정을 위해 권석만과 김지영이 개발하고 하승수(2012)가 사용한 것을 채택하였다. 총 21문항으로 행복의 세가지 구성요소는 즐거운 삶, 열정적인 혹은 관여적인 삶, 의미있는 삶으로 각 요소별 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Likert 4단계 평정척도 형식에 따라 각 문항의 항목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0, ‘약간 그렇다’를 1, ‘웬만큼 그렇다’를 2, ‘상당히 그렇다’를 3, ‘매우 그렇다’를 4로 응답하게 되고, 부정적인 내용의 문항 6, 14, 19번 문항은 결과 처리 시 역산 처리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 주관적 행복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4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즐거움 .87, 열정 .82, 의미 .82로 분석되었다.

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특성화고등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서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검사의 단축형(CDMSES-SF)을 신하영(2017)이 중·고등학교 대상의 척도로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총 25문항으로 4개의 하위 요인인 목표선택, 직업 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단계 평정척도 형식에 따라 각 문항의 항목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 ‘대체로 그렇지 않다’를 2, ‘보통이다’를 3, ‘대체로 그렇다’를 4, ‘매우 그렇다’를 5로 응답하게 되고, 검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95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 목표선택 .91, 직업정보 .84, 문제해결 .83, 미래계획 .80으로 분석되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 조사는 2019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서울지역에 위치한 두 개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의 남·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해당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교장선생님과 학년부장선생님께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여 협조와 동의를 구하였다. 설문당시 연구자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담임선생님께 연구동의와 주의사항을 전달하여 연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설문을 배부하고, 작성 후 즉시 연구자가 회수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배부한 설문지는 총 260부였으며, 수거된 설문지 중에서 무성

의하게 응답한 33부를 제외한 총 22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 분석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성격 강점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alpha)를 산출하고, 수집된 자료들로부터 각 측정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또한 구조방정식의 기본 가정인 자료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모형의 적합도 및 요인부하량을 확인하였다. 넷째,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확인을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부트스트랩(Bootstrap) 절차를 통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은 측정변인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추정법 중 하나다(배병렬, 2011). 정규분포성은 왜도와 첨도의 절대값으로 평가하는데, 왜도의 절대값이 3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10미만이면 정규성을 가정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본다(West, Finch & Curran, 1996). SPSS 프로그램은 첨도 값에서 3을 뺀 값을 나타내기 때문에 7미만이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왜도와 첨도를 구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든 측정변인의 정규성이 확인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성격강점, 주관적 행복,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성격강점, 주관적 행복,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변인 및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격 강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r = .67^{**}, p < .01$), 주관적 행복($r = .65^{**}, p < .01$)의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또한 행복($r = .62^{**}, p < .01$)과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성격강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각 하위요인, 그리고 행복의 각 하위요인들도 모두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특성화고등학생의 성격강점, 주관적 행복,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계수 (N =227)

	1	1-1	1-2	1-3	1-4	1-5	1-6	2	2-1	2-2	2-3	2-4	3	3-1	3-2	3-3
1. 성격강점	1															
1-1. 지혜와 지식	.85**	1														
1-2. 용기	.89**	.74**	1													
1-3. 인간애	.86**	.69**	.72**	1												
1-4. 정의	.86**	.66**	.72**	.77**	1											
1-5. 절제	.74**	.48**	.62**	.51**	.59**	1										
1-6. 초월성	.90**	.69**	.75**	.75**	.74**	.59**	1									
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67**	.51**	.60**	.59**	.58**	.43**	.66**	1								
2-1. 목표선택	.66**	.50**	.58**	.61**	.57**	.41**	.67**	.96**	1							
2-2. 직업정보	.62**	.47**	.57**	.55**	.55**	.38**	.64**	.93**	.86**	1						
2-3. 문제해결	.39**	.33**	.41**	.29**	.33**	.30**	.34**	.63**	.49**	.52**	1					
2-4. 미래계획	.56**	.44**	.49**	.48**	.51**	.40**	.54**	.88**	.79**	.76**	.46**	1				
3. 주관적 행복	.65**	.57**	.57**	.52**	.56**	.48**	.60**	.62**	.59**	.55**	.37**	.60**	1			
3-1. 즐거움	.52**	.45**	.44**	.41**	.45**	.44**	.44**	.47**	.43**	.40**	.35**	.47**	.92**	1		
3-2. 열정	.63**	.56**	.57**	.48**	.53**	.47**	.59**	.59**	.57**	.51**	.33**	.57**	.94**	.80**	1	
3-3. 의미	.68**	.58**	.60**	.57**	.60**	.43**	.65**	.69**	.67**	.64**	.35**	.64**	.93**	.75**	.84**	1
M	3.54	3.51	3.59	3.60	3.47	3.45	3.61	3.58	3.70	3.60	3.54	3.29	2.38	2.26	2.43	2.46
SD	.48	.52	.57	.59	.61	.53	.58	.60	.64	.65	.78	.70	.83	.71	.72	
왜도	.25	-.02	.22	.16	.15	-.04	.29	-.03	-.16	.01	-.34	.03	-.11	-.23	-.22	-.12
첨도	-.18	-.29	-.17	-.25	-.47	-.12	-.44	-.26	-.07	-.11	.06	.04	-.08	-.32	.32	-.19

* $p < .05$, ** $p < .01$, *** $p < .001$

2. 측정모형 검증

각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들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 확인하고자 위계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의 모형의 수학적 원리를 고려할 때 동치모형의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 위계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Kline, 2015). 그 결과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87.121$, $df = 64$, $p < .001$; TLI=.940, CFI=.951, RMSEA=.092(.077-.108)).

또한 각 잠재변인과 관측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요인부하량이 .53-.94의 높은 값을 가지고 있었고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관측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들을 적절히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13개의 측정변인으로 3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3. 구조모형 검증

가. 성격강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에 대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먼저 살펴보면 χ^2/df 의 값이 3미만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주고 있고, TLI가 .947, CFI는 .958로 모두 .90 이상으로 적합도가 양호함을 나타내고 있다. RMSEA는 .086이고 .10미만으로 보통 수준의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연구모형(부분매개)의 적합도 지수($N=227$)

	χ^2	df	TLI	CFI	RMSEA
연구모형	166.503***	62	.947	.958	.086(.071~.102)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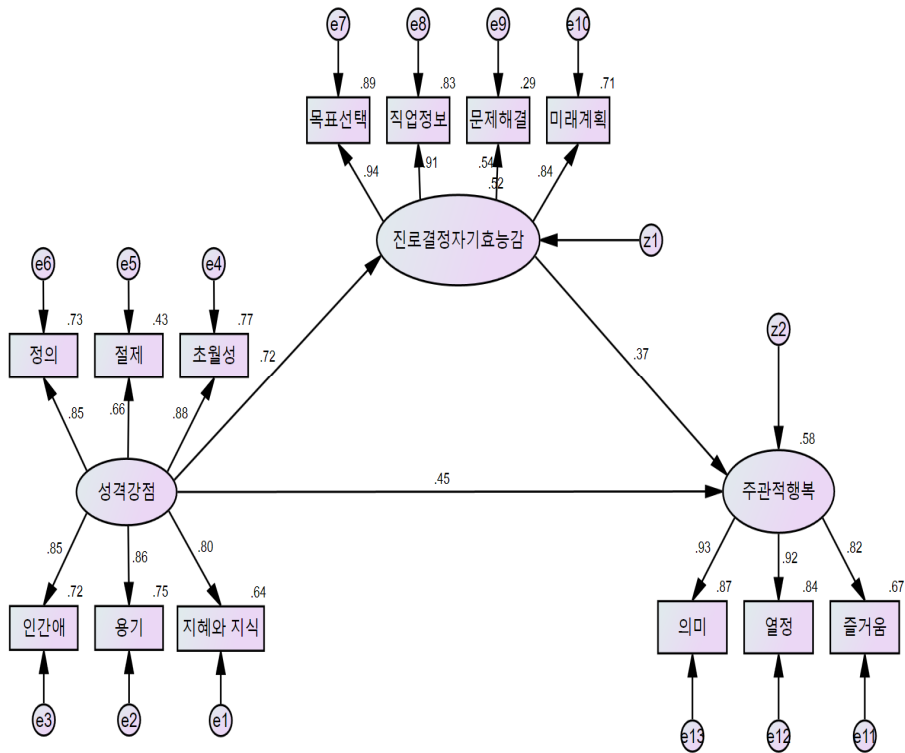
나. 성격강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에 대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후 연구모형의 경로계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 내의 모든 경로에 대하여 각 변인 간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C.R. \geq 1.9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격강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행복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행복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성격강점이 높아지면 주관적 행복을 직접적으로 높이기도 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경로를 통해 주관적 행복을 간접적으로 높이기도 한다.

<표 3> 성격강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주관적 행복에 대한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측정변인 간 경로계수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오차 (S. E.)	검정통계량 (C. R.)
성격강점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1.05	.72***	.09	11.23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주관적 행복	.42	.37***	.09	4.74
성격강점 → 주관적 행복	.74	.45***	.14	5.49

*** $p < .001$



[그림 2] 성격강점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다. 매개효과와 유의성 검증

매개변인은 독립변인의 결과이면서 종속변인의 원인이 되고, 매개변인이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의미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Tram & Cole, 2000). 즉, 상담분야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상담의 개입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서영석, 2010).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우수성 비교를 통하여 연구모형을 채택하고, 부분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성격 강점이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간접효과($\beta = .52, p < .001$)는 95%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성격강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부분매개로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표 4>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매개 경로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β	SE	하한	상한
성격강점 →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 주관적 행복	.52***	.06	.40	.65

*** $p < .001$, Bootstrap=5000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주관적 행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의 성격강점과 주관적 행복 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강점, 주관적 행복,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계수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측정변인 및 하위변인들 간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성격강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주관적 행복 간에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가졌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주관적 행복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자신의 성격강점을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높은 믿음과 연결되는 한편, 주관적 행복감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초등학교의 성격강점과 행복감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성격강점이 증가하게 되면 행복감도 함께 증가한다는 김민아(201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초·중·고등학교 집단에 따른 성격강점과 행복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24개 성격강점 모두가 행복 점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고 보고한 김지영(2016)의 연구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밝히고, 따라서 인간의 긍정적인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행복을 증진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한 긍정심리학자들의 견해를 지지한다.

둘째, 성격강점이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 특성화고등학교의 성격 강점은 주관적 행복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부분매개로 하여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성격강점이 이들의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높아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특성화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주관적 행복감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행복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였던 선행연구(윤지은·강영배, 2014)를 지지하는 것으로 성격강점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즉, 특성화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성격강점을 활용한 교육 및 상담적 개입을 실시한다면, 이들의 행복이 증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특성화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특성화고등학생의 행복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성격강점을 활용하는 한편, 진로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역할이 중요함을 뒷받침한다. 실제로 강점 인식 및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진로프로그램(원연자, 2014, 윤현영 2016)의 경우 대표강점을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성 탐색과 합리적 의사결정하기, 나의 진로 탐색하기, 나의 성격강점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직업 찾기 등과 같은 자기이해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성격강점을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성격강점을 활용하는 진로교육이 학생들이 자신의 성격강점을 이해하고 발견하고 이를 활용하도록 하여 개인의 행복 증진에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자기이해나 직업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포함하는 강점 기반 접근은 특성화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이들의 주관적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중요성과 더불어 주관적 행복을 높이는 데 시사점을 제공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특성화고등학생의 주관적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진로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격강점을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특성화고등학생의 행복도가 높아 질 수 있도록 특성화고등학생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강점기반상담 프로그램은 강점 분류체계에 따른 24개의 강점 가운데 감사, 용서, 낙관성, 학구열, 끈기 사랑, 친절 등의 7개 강점과 대표강점 인식 및 활용을 회기별 주제로 설정하였다(이현주·유형근·조용선, 2011). 실제로 강점기반 진로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의 경우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우월하게 증가하였다는 선행연구결과(허보영, 2015)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진로 교육은 직업 선택을 위한 진로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직업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주관적 행복감 증진을 돕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는 특성화고등학생의 행복도를 예측하기 위해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에

대해 갖고 있는 긍정적 인식과 더불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이 기여하는 바를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성격강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특성화고등학교가 경험하는 주관적 행복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에서 이들을 지도할 때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성격적 강점을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특성화고등학교의 가장 커다란 고민인 진로문제를 이해하고 돕기 위하여 학교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념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지역 두 개의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과 남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모든 특성화고등학교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검증하였으므로 학년에 따른 차이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학년별 비교를 고려한 추후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성격강점 및 주관적 행복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부분매개효과를 밝혀, 특성화고등학교의 주관적 행복감을 설명하는 구체적 경로를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주관적 행복을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동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강점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함을 뜻한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고등학교의 행복 증진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진로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9). 2015년도 학업중단학생 자료.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김미진 (2011). 성격강점과 행복 간의 관계에서 자기수용의 매개효과.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아 (2017). 초등학생의 성격강점과 행복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청주교육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림 (2014). 청소년의 강점인식과 진로결정효능감의 관계.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지, 이정자 (2013). 진로장벽,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0(1), 119-136.
- 김정주 (2010). 청소년의 성격적강점과 학교생활적응도 간의 관계.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영 (2011). 성격강점이 긍정적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영 (2016). 성격강점과 행복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4), 845-859.
- 박성미 (2004). 실업계 고등학교의 자아정체감 상태에 따른 진로탐색 및 진로결정 분석.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16(1), 11-20.
- 배병렬 (2011).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서영석 (2010). 진로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고등학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연자 (2014). 강점기반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지은, 강영배 (2019). 대학생의 가정 내 사회자보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17(2), 31-46.
- 윤현영 (2016). 성격강점 기반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진로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학, 이학주 (2000). 대학생의 진로 태도 성숙 정도에 대한 예언 변인으로서의 자기효능감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127-136.
- 이상준, 김나라, 유녕인, 고재성 (2008). **전문계 고교생의 진로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69-176.
- 이현주, 유형근, 조용선 (2011). 초등학생의 주관적 안녕감 증진을 위한 강점 기반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한국상담학회**, 12(2), 467-488.

- 이호진, 김완일 (2016). 특성화고등학생의 주도선과 진로적응성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강점 활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8), 311-333.
- 임영진 (2010). 성격강점과 긍정심리치료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유화 (2013). 특성화고 학생의 잠재적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진선 (2000).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2(1), 195-216.
- 조남근, 권정희, 정미예 (2016). 강점인식이 심리적 안녕감과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23(3), 1-27.
- 조은주 (2018). 대학생의 성격강점, 강점활용, 진로정체감, 진로적응성 간의 구조적 관계. 동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혜선 (2019). 고등학생의 성격 강점과 진로정체감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 (2019). **2019년 청소년 통계 자료**.
- 하승수 (2012). 청소년의 성격강점과 기질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 (2018). 2016, 2017, 2018 교육통계 자료.
- 허보영 (2015). 강점기반 진로훈련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tz, N. E., & Hackett, G. (1981). The relationship of career-related self-efficacy expectations to perceived career options in college women and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5), 399-410.
- Compton, W. C., Smith, M. L., Cornish, K. A., & Qualls, D. L. (1996). Factor structure of mental health meas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2), 406-413.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A Closer Look at Hope and Modest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628-634.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문용린, 김인자, 원현주, 백수현, 안선영 역 (2009). **긍정심리학의 입장에서 본 성격강점과 덕목의 분류**. 한국심리상담연구소.
- Kline, R. B. (201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Guilford publications.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New York: Free Press.
- Seligman, M. E. P., & Csikszentmihalyi, M. (2000). Positive psychology: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 New York: Harper& Row.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i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논문 접수: 2019년 12월 11일

논문 심사: 2019년 12월 20일

게재 승인: 2020년 1월 6일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sonality Strength and Subjective Happiness in Specialized High Schools

Hu, Hea Young(Sangmyung University)

Chang, Seok Jin(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research was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strength and subjective happiness in specialized high schools, and prov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s in that relationship. As for the research subject two days from July 17, 2019, data of 227 students who were attending specialized high schools in Seoul at the moment have been used for the final analysis. A survey which asked about the scale of personal strength, subjective happiness, and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s has been conducted to gather enough data. Afterwards, the Structural Equation Verification has been used to find out about the correlations between personal strength and subjective happiness, and the mediating effect. Furthermore, the AMOS Statistics Program has been used to identify structural relationships with key variables. Whereas through the Bootstrap Procedure, the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s were proven.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personality strength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subjective happiness and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s. Additionally, the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s also showed high correlation with happiness. Secondly, the self efficacy on career decisions showed partial mediating effects with the personality strength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in a relationship with subjective happin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ersonality strengths of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increase thei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the increased career-determining self-efficacy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subjective happiness experienced by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research, and suggestions and implica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 **Key words:** personal strength, subjective happiness, self-efficacy, specialized high school students